

요즘 부자가 되는 방법

2021년 4월

1982년부터 매년 포브스지는 미국 최고 부자 명단을 발표해 왔습니다. 1982년의 100대 부자와 2020년의 100대 부자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2년 가장 흔한 부의 원천은 상속이었습니다. 100명의 부자 중 60명이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뒤꽂이 가문의 상속인만 10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상속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100대 부자 중 상속인은 27명에 불과했습니다.

상속인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세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상속세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상속인의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재산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을까요? 대략 3/4는 창업을 통해, 1/4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0년 73명의 새로운 부호 중 56명은 창업자 또는 초기 직원의 지분(창업자 52명, 초기 직원 2명, 창업자 부인 2명)을 통해, 17명은 투자 펀드 관리를 통해 새로운 부를 얻었습니다.

1982년 미국 100대 부호 중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었습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1982년에도 존재했지만, 설립자 중 100위 안에 들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을 믿고 돈을 맡기게 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

하지만 현재 새로운 부의 주요 원천은 창업이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2년보다 지금 창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회사들이 하는 일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82년에는 석유와 부동산이라는 두 가지가 새로운 부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1982년에 새로 생긴 40개의 재산 중 최소 24개는 주로 석유나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73개의 새로운 재산 중 부동산이 4개, 석유가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2020년까지 새로운 부의 가장 큰 원천은 "기술" 회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73개의 새로운 재산 중 약 30개가 이러한 기업에서 창출되었습니다. 2020년 상위 10대 재산 중 8개가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재산이었으며, 이는 특히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기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소매업체이고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어쩌면 50년 후,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면 이 두 기업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이 옳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두 기업을 구분 짓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소매업체가 AWS를 시작했을까요? 로켓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운영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어디일까요?

1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술 기업들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기업이 대부분 추진력이 강하고 거래를 잘 성사시키는 **CEO**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여 성공을 거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 기업의 부상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1982년 포브스 400대** 기업의 석유 및 부동산 거물들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추진력이 강하고 거래를 잘 성사시킴으로써 승리했습니다. [2] 사실 이러한 부자가 되는 방식은 산업혁명 이전부터 내려온 오래된 방식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 왕실의 (명목상) 시중을 들며 부자가 된 궁정인들도 대체로 추진력이 강하고 거래를 잘 성사시켰습니다.**

지니계수를 깊이 들여다 보지 않는 사람들은 **1982년** 당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며 **1982년**의 세상을 좋은 시절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파헤쳐 보면 옛날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982년에 100대 부자 중 84%**는 상속, 천연자원 채굴,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기술 회사를 창업하여 부자가 되는 세상보다 정말 더 나은 세상일까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회사를 창업하는지가 아니라 왜 다시 회사를 창업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3]

**1892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미국의 모든 백만장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4,047명**이었습니다. 당시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상속인 비율보다 적은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산의 출처를 조사해보면 **1892년**은 오늘날과 훨씬 더 비슷해 보입니다. 휴 로코프는 "많은 부자들이 ... 대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초기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

따라서 **2020년**이 아니라 **1982년**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1982년**에 창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왜 그렇게 적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헤럴드 트리뷴이 명단을 작성할 당시에 미국 경제에는 **통합의** 물결이 휩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J.P. 모건**과 같은 금융가들은 수천 개의 작은 회사를 수백 개의 거대한 회사로 합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경제의 주요 부문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카르텔로 조직되었거나 소수의 과점 기업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마이클 린드는 말합니다. [5]

**1960년**에 오늘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트업 중 한 곳에 취직했을 것입니다. **1890년과 2020년**에는 창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1960년**에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과정 체제를 뚫고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죠. 따라서 **1960년** 당시에는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6]

모든 사람을 기업 직원으로 만들면 경제적 불평등(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변화)이 줄어들었지만, 정상에 대한 모델이 **20세기** 중반이라면 그 점에서 매우 잘못된 모델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JP 모건의 경제는 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1970년대부터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해체됐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노쇠화. 1930년에 규모와 효율성의 모델로 보였던 대기업들은 1970년에 이르러 느슨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1970년까지 경제의 경직된 구조는 다양한 그룹이 시장의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아늑한 동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연방 정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규제 완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과점기업을 지탱하는 정책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경제를 무너뜨린 것은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특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형태로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으로 덮인 연못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닥에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자리뿐입니다. 하지만 얼음 껍질이 약해지면 가운데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연못의 가장자리는 전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순수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1990년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은 얼음판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와 소매업체, TV 네트워크, 자동차 회사 등 기존 업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7]

하지만 JP모건 경제의 해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지만, 사회적 의미에서는 표준으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최근의 현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사실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실제로 10년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수와 부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소셜입니다. 사회는 이 개념을 (재)동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부모님이 한 세대 전처럼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 방법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개발과 고객 확보에 드는 비용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비용이 감소하면서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공장을 짓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업자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투자자가 창업자를 더 필요로 하며, 이는 벤처 캐피털의 증가와 맞물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8]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창업한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들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기술 덕분에 물건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1896년에 설립된 IBM은 2020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45년이 걸렸습니다. 1939년에 설립된 휴렛팩커드는 25년이 걸렸습니다. 1975년에 설립된 Microsoft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표준은 7~8년입니다. [9]

빠른 성장은 창업자의 주식 가치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가치는 매출과 성장률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 매출 10억 달러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회사의 가치는 느리게 성장할 때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에 드는 초기 비용이 낮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젊게 시작할 수 있고, 오늘날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성공하면 불과 몇 년 후 놀랄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회사를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창업한 사람들은 투자자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받고, 그 결과 회사의 가치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20세기 대부분 동안 창업이 억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미국의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 하에서 미국이 취한 모호한 우회전에 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니계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치있는 회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럴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참고 사항

[1] 1978년 노동부의 규제 변경으로 연기금의 투자가 허용된 후 투자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러한 성장의 영향은 1982년 상위 100대 기업에서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2] 조지 미첼은 예외로 언급할 만합니다. 그는 추진력이 강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능숙했지만, 셰일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기 위해 프래킹을 사용하는 방법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3] 사람들이 더 많은 회사를 창업하고 있다는 말은 매우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체 신규 기업 수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 소매업과 서비스업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체 수 감소에 대한 통계는 사람들이 신발 가게와 이발소를 덜 창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는 (1)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2) 빠르게 크게 성장하도록 설계된 특정 유형의 회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표시된 그래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2)가 아닌 (1)의 의미에서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4] 록오프, 휴. "금빛 시대의 위대한 행운." NBER 워킹 페이퍼 14555, 2008.

[5] Lind, Michael. 약속의 땅. 하퍼콜린스, 2012.

20세기 중반의 높은 세율도 사람들이 창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위험하며, 위험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사람들은 [안전](#)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과정과 높은 세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부동산과 석유 탐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로비를 통해 실효세율을 훨씬 낮추는 거대한 세금 허점을 찾아냈고, 만약 신기술을 개발해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허점을 찾기 위해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6]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석유 탐사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두 분야는 통합에 취약하지 않은 경제의 두 가지 큰 영역이었습니다.

[7] 예전에는 순수 기술 기업을 '하이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이 방하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가장자리에 대한 별도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하이테크'라는 용어는 확실히 [복고풍의](#) 느낌을 줍니다.

[8]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은 주식을 적게 팔아 주어진 금액을 받거나, 주식을 많이 팔아 주어진 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면 당연히 더 부자가 되지만,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 (a) 회사가 더 성공해야 하고 (b) 다음 라운드까지 더 오래 버틸 수 있거나 심지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은 돈이 그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요즘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것은 스타트업 창업 비용이 저렴해졌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스타트업은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돈을 제공하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2세기 동안 자본과의 싸움에서 노동의 편에 섰던 극좌파가 마침내 노동이 승리한 것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식은 안 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9] IBM은 1911년 세 개의 회사를 합병하여 탄생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회사는 1896년에 설립된 Herman Hollerith의 표 작성 기계 회사(Tabulating Machine Company)였습니다. 1941년 매출은 6천만 달러였습니다.

1964년 휴렛팩커드의 매출은 1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1988년 Microsoft의 매출은 5억 9,0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글의 초고를 읽어준 Trevor Blackwell, Jessica Livingston, Bob Lesko, Robert Morris, Russ Roberts, Alex Tabarrok, 그리고 성장 데이터를 제공한 Jon Erlichman에게 감사드립니다.